

02

FTA 최근 동향



02. FTA 최근 동향

I. 관세청 주요 이슈

World Bank, 우리나라 관세행정 세계최고로 평가 (2013. 10. 30)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0월 29일 세계은행(World Bank)이 발표한 전세계 국가에 대한 통관행정분야에서 우리나라가 5년 연속 1위를 차지하였다고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 우리나라는 모든 평가항목을 포함한 국가 전체 평가순위에서 사상최초로 7위를 달성하였으며, 관세청의 통관행정 분야에 대한 좋은 평가가 국가전체 순위 향상에 상당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는 선진국 그룹인 G20 국가 중에서도 전년도에 이어 확고하게 1위를 차지하여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통관단일창구(Single Windows)수출로 확인된 Global 관세행정 선도국으로서 그 위상을 세계적으로 재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

중소협력업체 FTA 원산지부담 세관에서 해결 (2013. 10. 31)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의 원산지확인서 발급 부담을 획기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를 추진한다.

‘원산지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세관장이 중소기업이 발급한 원산지확인서의 적정성을 확인하여 신뢰성을 부여하는 제도이다.

세관장은 중소기업으로부터 포괄원산지확인서와 관련자료를 제출받아 발급된 확인서가 FTA특례법령과 자유무역협정에 부합하는지 심사¹⁾ 및 확인을 한다. 수출자는 세관심사가 완료된 원산지확인서를 제공받아 수출물품 원산지판정에 활용함으로써 ‘한국산 물품’의 FTA 특혜수출에 사용할 수 있다.

이를 통해 관세청에서는 협력업체의 원산지증빙 부담을 덜고 확인서의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한다. 원산지 확인서 세관장 사전확인제는 2013년 11월 1일부터 서울세관에서 중소기업업을 대상으로 시범운영중이다.

코스타리카에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추진 (2013. 11. 07)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코스타리카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방안을 협의하였다. 특히 관세청은 11월 7일 방한 중인 코스타리카 부통령(Mr. Luis Liberman Ginsburg)에게 우리나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을 소개하였다.

또한, 양국은 코스타리카에 유니패스(UNI-PASS) 수출 등 관세행정 협력 방안을 논의하였다. 루이스 코스타리카 부통령은 관세행정 정보화가 우리나라 경제성장과 무역원활화에 기여한 것에 공감하고, 코스타리카 경제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유니패스(UNI-PASS) 도입 등에 많은 관심을 표명하였다.

1) 품목분류번호(HS코드) 6단위로 협정별 원산지기준 충족여부 등 심사함

한편, 관세청은 에콰도르, 탄자니아 등 8개국에 유니패스(UNI-PASS)를 수출한 바 있으며, 최근 코스타리카를 비롯한 콜롬비아, 볼리비아와 유니패스 수출과 관련한 MOU를 체결하였다.

「FTA 포털 시스템」 대폭 개편 (2013. 11. 21)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우리나라 기업이 FTA 활용 관련 정보를 찾을 때 주로 이용하는 정부 사이트인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을 새롭게 개설했다.

총 6개월간에 걸쳐 진행된 이번 개편 사업은 개방·공유·소통·협력이라는 정부기조를 적극 반영하고 수요자인 국민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모든기능을 개선하는데 주력하였다.

금번 시스템의 상세 개편에서는 개인 홈페이지 기능인 마이메뉴(my menu)가 새롭게 만들어졌다. 이와 함께 '원산지검증' 분야의 정보제공을 위하여 '자가검증 Tool' '검증사례' 등에 대한 내용을 새롭게 추가하였으며, 통합검색 기능이 업그레이드되었다.

관세국경관리연수원, 건국대학교와 MOU 체결 (2013. 11. 21)

관세국경관리연수원(원장 주시경)은 21일 건국대학교(국제비즈니스대학)의 공동발전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노력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다.

앞으로, 양 기관은 학술·연구 활동 공유, 현장학습 및 상호방문 활성화, 교수인력 등 교육자원 교류, 기타 필요한 활동 및 편의 제공을 위하여 긴밀히 협조해 나가기로 하였다.

이번 협약내용에 따라 연수원은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역현장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세관 현장체험학습관을 활용한 무역관련 실무교육과 현장체험행사를 실시한다. 또한, 건국대학교는 세관공무원 교육프로그램과 워크숍 등을 지원하게 된다.

카툰식 “FTA-toon 통합 매뉴얼 발간” (2013. 12. 02)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에 필요한 기본정보를 쉽고 친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FTA 활용 매뉴얼인 'FTA-toon 통합 매뉴얼'을 발간하여 배포하였다.

이번 'FTA-toon 통합 매뉴얼'은 원산지증명서 발급, 원산지검증 대응 등 원산지관리 전반에 대해 연재만화 형식으로 발간한 것을 총 합본으로 제작하여 종합적인 FTA 활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책자의 구성은 중소기업이 자유무역협정(FTA) 활용의 난관을 극복하는 과정을 '카툰식'으로 설명하고 있으며, 총 6편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당 책자는 전국세관의 'FTA 원스톱 지원센터'에서 무료 배부하고 있으며, 관세청 FTA 포털(<http://fta.customs.go.kr>) E-Book-Zone에 게재되어 있다.

콜롬비아·볼리비아와 전자통관시스템 수출 양해각서(MOU) 체결 (2013. 12. 04)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월 2일 콜롬비아 관세청장 (Ms. Claudia Maria Gaviria Vásquez) 과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수출 방안을 협의하기 위한 한·콜롬비아 세관협력회의를 개최하였다.

또한, 12월 3일에는 볼리비아 라파즈에서 볼리비아 관세청장(Ms. Ardaya Vazquez)과 제2차 한·볼리비아 관세청장회의를 개최하였다. 양국 관세청장은 이번 회의에서 볼리비아에 전자통관시스템(UNI-PASS) 구축을 위한 수출협력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선진 관세행정기법 공유 방안 등 공동 관심사항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향후, 우리나라 유니패스(UNI-PASS)가 콜롬비아와 볼리비아에 구축되면 무역환경이 크게 개선되어 중남 미지역으로 진출하려는 우리기업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FTA 활용 Know-How 공유를 위한 'FTA 성공 사례 경진대회' 개최 (2013. 12. 09)

관세청(청장 백운찬)은 12월 9일 코엑스에서 수출입 기업 임직원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FTA 성공 사례 경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행사는 정부 3.0 기조에 발맞추어 다양한 FTA 활용 성공사례를 발굴하고 활용 기술을 적극적으로 공유하여 FTA 활용을 확산하기 위한 것이다.

이날 대회에서는 FTA 활용분야, 원산지 사후검증 대응분야, 일자리 창출 분야 등 사전심사를 거쳐 선정된 총 14편의 성공사례가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정부의 도움으로 고질적인 해외통관애로를 극복한 기업과 대기업-중소기업 동반성장을 통해 FTA 활용체제를 구축한 기업도 특별사례로 소개되었다.

관세청장(백운찬)은 개최사를 통해 FTA 이행경험이 짧은 기업에 이번행사가 FTA 활용 과정에서 어려움을 극복한 사례를 간접적으로 체험하여 기업이 겪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II. 우리나라 FTA 동향²⁾

한·미 FTA 이행기구회의 개최 결과 (2013. 11. 04 ~ 05)

지난 11월 4일과 5일(미국 시간) 한·미 FTA 상품무역 위원회, 의약품 및 의료기기 위원회, 한반도역외가공 지역위원회가 한·미 양국 관계부처 담당관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워싱턴 D.C.에서 개최되었다.

양국은 한·미 FTA에 따라 협정 이행 관련 논의를 위해 장관급 공동위원회 및 19개 분야별 위원회 및 작업반을 설치하였다. 특히, 상품무역위원회에서는 양국은 제1차 회의 이후 양국 간 상품 교역, 원산지 및 통관분야 협정 관련 관심사항을 논의하고, 세관협력 강화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였다.

2) 출처: 우리나라 FTA 동향 전체 기사 무역협회(http://www.kita.net/trade/fta_news/fta_news_kita.jsp) FTA 뉴스에서 참조

이외에 한반도 역외가공지역 위원회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및 남북협력 현황에 대한 의견 교환과 협정 부속서 22-나(한반도역외가공지역위원회)의 이행을 위한 기초적인 논의를 개시하였다.

한·인도네시아 CEPA 제6차 협상 개최 (2013. 11. 04)

한·인도네시아 CEPA 제6차 협상이 11월 4일에서 8일까지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되었다. 우리나라는 산업통상자원부(김영무 FTA 교섭관)와 인도네시아 공기업부 장관(사할라 룬반 가을 전전자문관)이 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제6차 협상에서 양국은 협상 진전을 위해 상품, 서비스, 투자, 원산지·통관·규범 등 각 분야별로 심도 깊은 논의를 하였다.

본 협상은 지난 10월 양국간 정상회담시 한·인도네시아 CEPA의 연내 타결에 합의함으로써 협상 진전을 위한 발판이 마련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한·인도네시아 CEPA 체결을 통해 상품 및 서비스·투자 분야 개방 확대, 규범분야 제도 개선 등을 통한 우리기업 진출 확대 및 양국간 경제협력 강화가 기대된다.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 공청회 개최 (2013. 11. 15)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에 따라 TPP 관련 국민여론 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11월 15일 코엑스 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우태희 통상교섭실장)는 공청회 개최를 통해 대외 통상여건 급변에 따라 현재 우리의 FTA 추진전략에도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번 공청회에는 약 200여명이 참석하였으며, 1세션에서는 한국의 TPP 전략, 2세션에서는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순으로 진행되었다.

한편, TPP가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 KIEP(김영귀 부연구위원)에서는 TPP 참여시 2.5~2.6%의 실질 GDP 증가, 불참할 경우에는 최대 0.19%의 실질 GDP 감소가 있을 것으로 예상하였다.

한·터키 FTA 서비스·투자협정 제5차 협상 개최 (2013. 11. 18 ~ 21)

한·터키 자유무역협정(FTA) 서비스·투자 분야 제5차 협상이 11월 18일에서 21일 서울에서 개최되었다. 우리 측은 산업통상자원부(김명준 서비스투자과장)가 수석대표로 터키쪽은 경제부 야피치(Yapici) EU국장이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양측은 제3차 협상(11.3월)까지 진행 후 중단되었던 서비스·투자 분야 협상을 지난 8월 재개하여, 내년 상반기 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추진중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양허안 협상을 추진할 예정이다.

세부 협의 사항은 서비스협정에서는 지난 협상시, 기본적으로 GATS(WTO 서비스무역협정) 방식의 협정문 구조에 합의하고, 협정문 전반에 대한 합의를 하였다. 또한, 투자협정에서는 우리측이 제시한 새로운 협정문 초안을 기반으로 향후 유보리스트 작성 등 세부 협상을 추진키로 합의하였다.

한·중 FTA 제8차 협상 개최 (2013. 11. 18 ~ 22)

한·중 FTA 2단계 첫 협상인 제8차 협상이 지난 18일부터 22일까지 5일간 인천에서 개최되었다. 우리측은 우태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실장을 수석대표로 기획재정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중국에서는 왕서우원(王受文), 상무부 부장 조리(차관보급)가 수석대표로 참석하였다.

이번 협상은 1단계 협상에서 합의된 모델리티를 바탕으로 협정문 초안 및 상품 양허초안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였다.

상품분야에서는 원산지, 통관 및 무역원활화, 무역구제, 위생검역(SPS), 무역기술장벽(TBT) 분과도 개최되어 협정문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제9차 협상은 중국에서 개최될 예정이며, 구체적인 일정은 양국 간 추후 협의할 것이다.

우리나라,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관심표명 (2013. 12. 01)

우리나라 정부는 제143차 대외경제장관회의에서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³⁾에 대해 관심을 표명하기로 하였다. ‘관심표명’은 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기존 참여국들과 참여조건에 대하여 ‘예비 양자협약’에 들어감을 의미한다.

현재 TPP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칠레, 브루나이, 미국, 호주, 페루, 베트남, 말레이시아, 멕시코, 캐나다, 일본 포함 총 12개국이 참여하여 전세계 GDP의 약 40%를 차지하는 거대 지역무역협정이다.

한편, TPP 참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위해서는 TPP 협상 동향과 우리나라의 TPP 참여시 참가조건에 대한 정보수집이 필요한바, ‘관심표명’은 이를 위해 ‘예비 양자협약’을 개시하기 위한 절차이며, ‘공식적인 참여선언’과는 다르다.

한·캐나다 FTA 협상 “실질적 진전” 확인 (2013. 12. 04)

지난 12월 4일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캐나다 통상장관회담 결과,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에드 패스트(Ed Fast) 캐나다 통상장관은 한·캐나다 FTA 협상에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3) TPP는 새로운 글로벌 통상질서 창출에 목표를 두고 높은 수준의 자유화를 지향하는 21세기형 복수국간 FTA임.

양국은 제14차 한·캐나다 FTA 공식협상(11월 25일 ~29일)에서 시장접근 분야와 협정문 분야 모두에서 실질적 진전이 있었음을 평가하고, 최대한 조속히 한·캐 FTA 협상의 타결을 위해 상호 노력해 나가기로 하는데 합의하였다.

또한, 우리나라와 캐나다는 이번 통상장관회담을 계기로 한국의 TPP 참여 문제와 관련한 한·캐나다 차원의 “예비 양자협약”을 진행하였다.

한·호주 FTA 타결 (2013. 12. 05)

인도네시아 발리에서 개최된 한·호주 통상장관회담 결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윤상직)과 호주 통상·투자장관(Andrew Robb)은 한·호주 FTA 협상이 실질적으로 타결되었음을 확인하였다.

한·호주 양국은 3일과 4일 양일간 개최된 한·호주 FTA 7차 공식협상 결과, ISD 조항의 한·호주 FTA 반영문제, 상품 시장접근 이슈 등 모든 쟁점사항에 대한 협상단 차원의 논의를 마무리하였다.

양측은 향후 일부 기술적 사안에 대한 협의 및 협정문 전반에 대한 법률검토 작업(legal scrub)을 진행한 이후, 한국과 호주 FTA 협정문에 대한 가서명(initialing)을 내년 상반기 내에 추진하기로 하는데 원칙적으로 합의하였다.

III. 해외 FTA 관련 동향⁴⁾

터키, 3년 반만에 EU가입 절차 재개 (2013. 11. 08)

터키와 EU 양측은 실무적인 협상을 다시 시작하였다. 협상 내용에는 그동안 묶여있던 22조항(Chapter 22)부터 재개할 것이며, 이 조항은 국가의 정책과 EU 정책과의 통합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와 함께, 터키는 인권과 사회적 정의의 내용을 담고 있는 23, 24조항 역시 곧 협상해 나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터키의 EU 가입은 단기간에 해결될 것 같지는 않으나 중장기적으로는 점차 가시화될 가능성이 크다.

우리 기업 측에서 보면 터키가 EU 측이 제시한 조항들을 준수할수록 터키에서의 경영 환경이 좋아질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또한, 터키가 EU 의존도에서 아시아 지역과의 교역 확대 등 아시아 친화적 정책을 많이 구사하고 있어 한국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TPP협상, ISDS 조항 도입 합의 (2013. 11. 10)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 참가 12개국은 투자 시 발생하는 국가 간 분쟁을 중재하는 ‘투자자 국제분쟁 해결(Investor State Dispute Settlement, ISDS⁵⁾)’ 제도를 도입하기로 합의하였다.

4) 출처: 해외 FTA동향 전취기사 KOTRA 해외비즈니스 정보포털(<http://www.globalwindow.org/>) 에서 자료 참조

5) ISDS는 민간 기업이나 투자자가 진출한 국가의 갑작스러운 제도 변경으로 손실을 본 경우 국제 중재기관에 해당 국가를 제소할 수 있는 제도임.

또한, 해당 분쟁 해결을 위한 심의 내용이나 서류를 공개해서 절차의 투명성을 높이고 분쟁 중재인 후보자도 미리 결정해 신속하게 심의할 수 있는 체제를 정돈한다는 방침이다.

일본과 미국은 글로벌 기업 보호를 위해 도입을 촉구해왔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와 호주는 “소송이 남발될 수 있다”며 도입에 적극적이지 않았다. 그러나 협상의 연내 타결을 목표로 참가국이 ‘소송의 남발을 방지’한다는 조항 포함을 조건으로 동의한 상태이다.

미·EU FTA(TTIP) 2차 협상 완료 (2013. 11. 21)

EU와 미국은 지난 2월 13일 미·EU FTA (Transatlantic Trade and Investment Partnership, 이하 TTIP) 협상개시를 선언하고 지난 7월 워싱턴에서 이미 1차 협상을 개시하였다.

가장 관심을 끄는 협상 분야는 바로 산업 관련 규제 규정이다. 이번 TTIP를 통해 세계 규제와 표준을 주도하기 위한 양측의 치열한 협상이 이미 진행되었다. 주요 협상 대상 품목은 의료기기, 화장품, 의약품, 화학, 농약, ICT 또는 자동차 등이었다.

화학제품의 경우 EU 역내에서 시판되는 모든 화학제품은 유럽화학물질청(European Chemicals Agency)에 등록해야 하는 등 미국보다 EU 측의 규정이 엄격한 상태이다. 이번 협상에서는 화학물질 안전평가시 중복되는 항목의 상호 평가결과 인정, 화학물질 분류 기준의 통일 문제에 대한 논의가 주로 이루어졌다.

파나마·미국 FTA 발효 1주년 (2013. 11. 22)

2003년 시작된 파나마·미국 FTA 협상은 2007년 파나마 국회 비준을 통과해 미 국회의 비준통과만을 남겨두고 미국 정치상황 악화로 비준 처리가 보류되었다.

이후 미 의회는 FTA 비준을 위해서 파나마 조세조약, 노동법 통합 등을 추가로 요구하였다. 이러한 미국 측의 반응에 파나마 마르티넬리 정권이 요구를 수용함에 따라 2011년 미 상하원에서 FTA 비준안이 통과됐고, 2012년 10월 31일 파나마와 미국 FTA가 공식 발효되었다.

파나마·미국 FTA에서는 농축산물 관련 협상이 가장 큰 쟁점이었으며, 관련 품목에 관해서는 할당제 도입 및 점진적으로 감세를 진행해 관세 철폐하기로 하였다. 다만, FTA 발효 후 1년이 지난 지금 FTA 기대효과는 미미한 상태로 나타났다.

베트남 정부, 2014년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 (2013. 11. 22)

베트남 재정부는 현재 특혜관세율을 적용받는 품목 중에 2014년 WTO Commitment보다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3,425개의 관세선(tariff line)을 대상으로 수입관세 인상 조정안을 검토 중이다.

이번 조정안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되지 않는 2,963개의 관세선에는 현 관세율을 유지하기로 했으며 나머지 462개에 대해서는 최대 10%까지 수입세를 인상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베트남 정부는 2014년도부터 새로운 관세율 적용을 시행하기 위해 올해 말까지 수입관세 인상·인하 계획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WTO Commitment에 적합하며 완제품과 부품·소재 간 비합리적으로 설정된 수입관세를 조정해 관세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브라질 기업, 미국과 FTA 체결 필요성 제안 (2013. 11. 24)

최근 브라질 국가산업연맹(전경련과 유사단체) CNI는 미국 중앙은행 본사에서 열린 양국 경제인 회의에서 브라질과 미국 간의 FTA 체결의 필요성을 강력히 주장하였다.

미국은 중국에 이어 브라질의 두 번째로 큰 무역상대국으로 브라질은 미국에서 주로 공산품을 수입하고 있다. 한편, 브라질은 2000년부터 2008년까지 연간 100억 달러 규모의 대미국 무역 흑자를 유지했으나 2008년 이후 적자가 지속하고 있다.

아직은 미국·브라질 간 FTA 체결에는 많은 애로사항이 존재할 것으로 전망되며 단기간 내에는 쉽게 타결되지 않으리라고 예측되고 있다.

이란 핵협상 극적 타결, 제재 완화 예측 (2013. 11. 26)

스위스 제네바에서 재개된 이란 핵 협상이 24일(일) 전격적으로 타결되었다. 이번 타결 내용은 향후 6개월간 이란이 핵 활동을 중단하는 조건으로 서방이 임시적인 제재 완화를 제공하는 것이며 핵심내용은 다음과 같다.

앞으로 6개월간 추가제재는 미시행되며, 이란산 원유 판매 추가 감축노력이 중단된다. 이번합의는 이란 핵 문제의 전면 해소를 위한 3단계의 포괄적 합의안 가운데 첫 단계에 해당하며, 합의문 말미에 향후 노력을 약속하였다.

이번 합의안은 지난 2003년 이란 핵 개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제재가 시작된 이래 10년 만에 처음 도출된 것으로 그 의의가 매우 큰 것으로 알려졌다. 서방의 제재 완화로 인한 경제적 실익과 함께 불신의 관계를 지속해 온 양측 간 조성된 화해 분위기는 역사적 의미가 있다.

방글라데시,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CFA) 체결 (2013. 11. 30)

방글라데시는 지난 11월 26일 미국과 무역투자 기본협정(TICFA, Trade and Investment Cooperation Forum Agreement)을 체결하였다.

TICFA 체결 논의는 2001년 처음 시작됐으나 방글라데시 내 좌파 및 진보세력의 반대, 정부의 추진 의지 부족 등으로 계속 지연된 바 있다.

TICFA는 구체적인 권리와 의무사항을 규정한 것은 아니며 무역 및 투자 관련 제반 이슈에 대해 양국이 정기적으로 논의하는 장을 만든다는 데 의의가 있다.

방글라데시는 TICFA 협상을 통해 관세혜택(GSP)의 재개 및 확대를 기대하고 있으며, 미국 측은 TICFA 협상을 통해 방글라데시 노동환경 개선, 무역투자 자유화와 개방, 지적재산권 보호를 강력하게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EU 자동차업계, 우리나라에 무역장벽 철폐 요구 (2013. 12. 05)

지난 11월 7일, EU·한국 회담에서 유럽 자동차업계 대표 기관 유럽자동차공업협회, 유럽자동차부품업체협회, 유럽타이어제조사협회에서 현재 무역장벽과 비관세 장벽을 철폐할 것을 촉구하였다.

EU 3개 기관에서는 협정발효 이후 EU집행위가 EU 자동차산업 환경을 위해 노력한 것은 알고 있으나, EU 집행위에 현재 무역장벽을 철폐할 수 있도록 긴급 조치를 취하라고 요구하였다. 또한, 이런 요구는 유럽 자동차산업에 대한 자유 무역이 실제로 한국과의 교역에서 현실화시킬 수 있는 필수적인 사안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EU 자동차기관의 주장에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는 구체적으로 EU 측에서 어떤 무역장벽이 걸림돌인지 명확하게 언급하지 않았으며, 한·EU FTA 발효 이후 우리나라의 무역수지가 적자를 내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이와 함께, 독일, 이탈리아, 프랑스 등 유럽산 수입차들이 우리나라로 진출하고 있어 국내에서 자동차시장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고 설명하였다.